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야고보서 1:5~6 (성구 익히기) 우리가 신앙으로 간구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수 있고, 그것을 받을 수 있다. (25~30분)

칠판에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의 다음 말씀을 적는다.

“이 단 하나의 구절이 어느 시대에 어느 선지자가 기록한 다른 어떤 구절보다도 더 큰 영향과 광범위한 결과를 인류에게 가져왔습니다.”(신약교리 주해서, 3:246~247쪽)

학생들에게 맥콩키 장로가 어떤 성구를 지칭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반 전체가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고 이 성구가 어떻게 칠판에 있는 말씀을 성취했는지 질문한다. **조셉 스미스-역사 1장 10~19절을** 읽고 또한 조셉 스미스가 이 구절을 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본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첫번째 시현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만일 조셉 스미스가 기도하라는 영의 속삭임을 따르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 수 있는가?
-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에서 종종 요청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는 것과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그 차이를 보여주는 어떤 예를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는가? (학생들이 바란다면 경험을 나누도록 하지만, 너무도 성스럽고 개인적인 것을 나누지 않도록 주의한다.)
-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에 더욱 큰 권능을 가져다주는가?

조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기 위해 사용했던 힘의 근원을 찾아보면서 **야고보서 1장 6절을** 읽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신앙으로 드리는 기도와 의심으로 구하는 기도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 학생에게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이** 기도에 관해 가르친 내용을 읽게 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 주님께 간구하는 것에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과 확신과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축복을 간구할 때 마음의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복음 교리, 193쪽)

더 큰 신앙으로 그리고 덜 동요하는 가운데 기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한다. 만일 우리가 열린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삶을 변화시키는 권능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간증한다.

저자 및 대상. 야고보서의 저자는 흠어져 있던 열두 지파에게 서한을 썼으며,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 야고보라고 밝혔다.(야고보서 1:1) 이 사람은 아마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복 형제인 야고보였을 것이다.(마태복음 13:55; 갈라디아서 1:19)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써, 주님과 매우 가깝게 지냈을 것이며 아마도 필멸의 세상에 있던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 친밀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부활의 증거를 받았다.(고린도전서 15:7 참조)

역사적 배경. 야고보서는 일반 서한으로 분류된다. 일반

서한이라는 명칭은 이 서한들이 바울이 보낸 많은 서한들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대상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붙여졌다. 구체적인 정보의 부족으로 기록된 시기와 장소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야고보서에는 그가 언제 어디서 이 서한을 썼는지에 관한 단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이 서한이 그가 살았던 곳인 예루살렘에서 기록되었다고 가정할 뿐이다.

우리는 야고보의 서한이 서기 62년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그해에 주님의 형제 야고보와 다른 몇몇 사람들이 산헤드린으로 끌려가서 사형을 선고받고 돌에 맞아 죽었다고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했기 때문이다.(유대의 고사, 20.9.1) 또한 야고보가 서기 50년경에 있었던 예루살렘 대회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사실은 이 편지가 이전에 기록되었음을 말해 줄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이 편지는 신약전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편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주제. 이 편지는 우리가 일단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면 매일의 생활에서 그 신앙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야고보의 서한은 성도들에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에 따라 생활하도록 권고하는 일련의 짧은 설교들로 이루어져 있다.

소개

야고보서 1~5장은 실천적인 종교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만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행함, 예를 들면 궁핍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움으로써 신앙을 보여주어야 한다. 야고보에게 신앙은 항상 행동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신앙을 보여준 가장 두드러진 예 가운데 하나는 소년 조셉 스미스가 야고보서 1장 5절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구절을 읽었을 때 일어났다. 조셉은 숲 속으로 가서 어떤 교회가 참된가를 여쭙어보아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그의 신앙은 보상을 받았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조셉의 기도에 응답하셨다.(조셉 스미스-역사 1:17)

기도하는 마음으로 야고보서 1~5장을 연구하고 공과를 준비하기 전에 다음 원리들에 대해 고려해 본다.

찾아보아야 할 중요한 복음 원리

-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내심으로 괴로움을 견디고 또한 유혹을 이겨낼 때 우리를 강화시켜 주신다.(야고보서 1:2~4, 12~21; 4:7~10 참조; 또한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야고보서 1:2, 12 참조)
- 순수한 종교는 궁핍한 이들에게 자선을 펼치며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야고보서 1:27; 2:1~9 참조; 또한 마태복음 22:34~40; 모사이아서 4:15~27; 교리와 성약 59:9 참조)
- 우리는 행함이 없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며, 또한 신앙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의로운 행함이 신앙의 열매이다.(야고보서 2:14~26; 1:22~25;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야고보서 2:18 참조)
- 허를 다스리는 것(우리의 말을 조절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을 향해 발전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야고보서 3:1~12 참조; 또한 모사이아서 4:30; 열마서 12:14 참조)
-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 된다.(야고보서 4:4~10 참조; 또한 모사이아서 3:19 참조)
- 주님을 믿는 신앙, 기도, 신권은 병든 자와 고통받는 자를 축복하고 병고침을 하는 필수 요소이다.(야고보서 5:13~18 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35:9 참조)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야고보서 1:22~27.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된다.(35~40분)

공과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 회장이 최근에 교회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을 찾아 읽는다. (예를 들면 신권 모임 또는 여성 대회에서 하신 말씀) 그분이 청소년들에게 부탁한 서너 가지 요청 사항을 선정한다. 그것들을 칠판에 적고 학생들에게 선지자의 권고에 순종해 왔는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도록 부탁한다.

야고보서 1장 22~25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관해 토론한다.

-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듣기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 단지 듣기만 하는 사람과는 달리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이 오는가?

(유의사항: 원한다면, 여기서 야고보서 2장 17~18절에 나오는 가르침을 위한 제언을 사용해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와 행함이 없는 신앙 사이의 관계를 보여 줄 수 있다.)

야고보서 1장 26~27절을 읽고 순수한 종교의 정의를 찾아본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과 순수한 종교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야고보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방법에 관해 많은 조언을 주고 있다.

반원을 다섯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게 해야 하는 것 목록이라고 적힌 종이 한 장씩을 준다. 각 그룹에게 야고보서의 각 장을 한 장씩 지정해 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잘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야고보가 제언한 사항들을 찾아보면서 각 그룹이 배정받은 장을 읽어보게 한다. 그들이 찾은 것에 대해 토론하고 "해야 하는 것"의 목록을 모두 칠판에 적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만일 여러분이 야고보의 권고를 따른다면, 여러분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 이러한 권고 가운데 여러분이 이미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익을 가져온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기꺼이 얘기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경험을 나누어주도록 권유한다. 학생들에게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 목록(특히 선지자의 권고)을 실천하도록 격려한다.

야고보서 2:17~18(성구 익히기) 우리는 행함이 없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며, 또한 신앙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로써 행함이 신앙의 열매이다.(10~15분)

배를 젓는 데 사용하는 노 두 개를 반으로 가져온다. 하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다른 하나에는 행함이라고 쓴다. 학생들이 글씨를 볼 수 없도록 노를 뒤집어 놓는다. 또는

칠판에 두 개의 노가 있는 배를 그린다.(이때 노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어느 노가 더욱 중요한 노인가?
 - 만일 배 한 편에만 노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를 젓는다면,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가?
 - 왜 여러분은 두 개의 노가 필요한가?
- 야고보서 2장 17~18절을** 읽고 노를 뒤집어서 글씨를 보여준다. (또는 칠판에 그린 노에 글귀를 적는다)
- 이 구절이 주는 메시지와 노가 주는 교훈은 어떻게 유사한가?
 - 어떤 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가?
 - 어떻게 우리는 "행함"이라는 노를 무시할 수도 있겠는가?

학생들에게 **야고보서 2장 14절을** 읽고 질문에 답하게 한다. 신앙과 행함을 모두 확실히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과 야고보의 답을 찾아보면서 **야고보서 2장 15~26절을** 읽는다.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야고보서 3:1~12. 혀를 다스리는 것(우리의 말을 조절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을 향해 발전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20~25분)

칠판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적고 다음 단서를 읽는다. 여러분이 각 단서를 줄 때마다 학생들에게 가능한 답을 적게 한다.

- 나는 길들이기 어렵습니다. • 나는 축복을 할 수도 있으며 저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나는 많은 양의 독을 내뿜을 수 있습니다. • 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 나는 주님의 사업에 해를 미칠 수 있습니다. • 나는 다른 사람의 명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풀 기회를 준다. 답을 찾아보면서 **야고보서 1장 26절**을 읽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어떤 방법으로 혀가 이 모든 단서에 꼭 맞을 수 있는가?

구할 수 있다면, 말 재갈을 전시해 놓고 학생들에게 무엇인지 알아 맞춰 보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재갈은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 혀에 재갈을 먹이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 우리가 우리의 혀를 재갈 먹이지 못할 때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가? (또한 엘마서 38:12 참조)

학생들에게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발췌한 다음 말씀을 들려준다.

"말하는 태도나 언어는 말하는 사람의 인품에 관해 많은 것을 나타냅니다. 깨끗하고 지적인 언어는 총명하고 건전한 정신의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설사 농담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창피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관해 친절하고 긍정적으로 말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훌륭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제나 경건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분들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은 죄입니다.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농담은 물론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상스럽고 천박한 언어 또는 몸짓을 하는 것은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입니다. 상스러운 언어는 여러분의 심령을 상하게 하며 품위를 손상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언어를 사용하도록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십시오."(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22~23쪽)

학생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혀를 재갈 먹이지 못할 때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게 한다. 반전체가 **야고보서 3장 1~10절**을 읽고 각각의 구절이 주는 의미에 대해 토론한다. 이 구절에 대해 토론할 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칠판에 말 재갈, 배의 키, 성냥, 독이 든 병을 그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구절들이 어떻게 혀에 관한 야고보의 가르침과 관련이 있는지 찾아보면서 **마태복음 15장 10~20절**을 읽고 상호 참조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여러분의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 혀를 재갈 먹이는 것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어떻게 미치는가?
- 우리 마음을 재갈 먹이는 것이 완전하게 되는 우리의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베냐민 왕이 혀에 관해 준 권고를 찾아보면서 **모사이아서 4장 30절**을 읽는다. 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답을 찾기 위해 **엘마서 12 장 14절**을 읽는다. 부적절한 말이 우리를 정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에 조심해야 한다고 간증한다.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자신을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써 자신의 혀를 재갈 먹이는 방법을 배우도록 격려한다.

야고보서 4:4~10.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 된다.(25~30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적힌 표어를 만들고, 이것을 한 의자의 뒤쪽에 걸어 놓는다.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적힌 표어를 준비해, 이것을 다른 의자의 뒤쪽에 걸어놓는다. 의자들을 나란히 놓고 학생들에게 동시에 양쪽 자리에 있는 것이 가능한지 묻는다. 한 학생에게 한 번에 두 의자에 앉도록 해 그것을 설명한다. 그 학생에게 일어서도록 하고 다시 그 의자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 그 학생에게 동시에 두 자리에 앉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지 묻는다. 그 학생에게 앉을 의자를 선택하게 한다.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 이 시범이 무엇을 말해 줄 수 있는가?
- 우리가 세상에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에 있으려 할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 하나님께 속한 것보다 세상에 속한 것을 우선해 선택한 결과로 어떤 어려움이 우리 생활에 일어나는가?

야고보서 4장 4~10절을 읽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구절을 찾아보게 한다. **모사이아서 3장 19절**을 상호 참조하고 이 구절들이 어떻게 야고보의 가르침에 대한 두 번째 증거가 되는지 토론한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의 12절**과 다른 점에 유의하면서 **야고보서 1장 12~13절**을 읽는다. 우리가 직면하는 유혹에 하나님께서 책임이 있는지 묻는다. **야고보서 1장 14~16절**을 읽고 예수와 그의 사도의 생애와 가르침, 414쪽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대한 주해를 나눈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악마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어떻게 유혹하는가?
-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왜 그분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서 **야고보서 5장 7~20절**을 읽고 그것들을 칠판에 열거한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 참는다.(7~8절) •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한다.(강하게 한다)(8절) •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9절) • 선지자들을 본받는다.(10절) • 인내한다.(11절; 또한 야고보서 1:2~4 참조) • 맹세하지 않는다.(12절) • 고난 당할 때 기도한다.(13절) • 찬송을 부른다.(13절) • 축복을 위해 장로들을 청한다.(14절) • 여러분의 허물을 고백한다.(16절) •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16절) • 죄인을 돌아서게 한다.(20절)

학생들에게 칠판에 열거된 권고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오실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묻는다. 학생들에게 그들의 약점 한 두 가지를 위의 목록에서 선정하고 그러한 면에서 발전하기 위한 개인적인 계획을 적도록 권유한다. **조셉 비 위스린 장로의 권고**를 나눈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입니다. 무엇이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퇴보를 겪지 않고 죄를 조금 질 수 있는 중간 지대나 희미한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회개하고 겸손한 기도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닌 간증의 횃불이 죄 때문에 꺼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Conference Report, 1992년 10월, 48쪽; 성도의 빛, 1993년 1월호, 36쪽)

학생들이 세상의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도록 격려한다.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베드로전서 1:3~11. 신앙의 시련을 충실하게 견디는 것은 구원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30~35분)

칠판에 답을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답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종류의 답이 필요한가?

칠판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준 위안의 말씀을 적는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며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도 이 소망과 지식은 모든 환란과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었습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292쪽)

학생들에게 이 “소망”이 무엇인지 결정하도록 하고 그들의 생각을 칠판에 적는다. **이더서 12장 4~6절을** 읽고 소망을 묘사하는 주요 단어들을 찾는다. 다음 질문에 대해 토론한다.

-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소망과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는가?
- 이더서 이런 종류의 소망을 무엇에 연관시켰는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상징적인 의미로 읽힐 수 있다고 제안한다. 학생들에게 그들 생활에서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며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는 방식을 이야기하게 한다.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읽고, 천둥, 번개, 지진, 전쟁을 학생들이 제안한 말들로 바꾼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영화로운 부활을 믿는 확실한 소망은 우리가 인생에서 난관에 직면할 때 어떻게 것처럼 우리를 잡아주는가?
- 우리의 답이 깊게 자리잡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 이 소망이 “모든 시험과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이겨내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줄 것”을 앞으로써 어떻게 여러분의 용기가 커지는가?
- 시련은 왜 우리의 답을 잡아당기고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경향이 있는가?

베드로전서의 소개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의 내용(오른쪽)**을 읽고 고대 성도들이 직면했던 시련에 대해 토론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왜 그들의 환경이 그들의 신앙을 시험했겠는가? 교회 회장으로서 베드로가 그들의 환난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권고를 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음의 성구를 학생들에게 나누어준다. **베드로전서 1:3~11; 2:19~25; 3:8~17; 4:12~19.** 학생들에게 그들에게 인상깊었던 시련에 관한 가르침을 찾아서 적게 한다. 반 전체가 학생들이 찾은 것에 대해 토론한다.

신앙을 증가시킴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시련을 견디는 동안 하나님께 답을 내리고자 하는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간증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2장 21절, 3장 17절, 4장 12~13절을** 읽는다. 우리가 신앙의 시련을 견디는 것이 구원의 길에서 큰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간증함으로써 끝맺는다.

베드로전서 2:1~17.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과 따로 구별될 것을 요청하셨다.(20~25분)

칠판에 택하신, 왕같은, 거룩한, 그의 소유가 된이라는 단어를 적는다.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위의 목록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단어를 하나 택하도록 한다. 어떤 학생이 택하신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는지 묻는다. 그들에게 이유를 묻는다. 나머지 세 단어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일반적으로 그의 소유된이라는 표현은 영어의 의미에서 다른, 낯선, 또는 이상한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고 베드로가 성도들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왜 “그의 소유가 된”이라는 표현이 바람직한 호칭인가? 이 표현에 대한 **러셀 엘넬슨 장로가** 언급한 내용을 들려준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peculiar라는 단어는 ‘귀중한 보물’, ‘하나님이 ‘만드신’ 혹은 ‘선택하신’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주님의 종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소유하신 백성이라고 보는 것은 참으로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Conference Report, 1995년 4월, 44쪽; 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34쪽)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는지 토론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학생들에게 **고린도전서 7장 23절과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기 위해 치루어야 하는 대가를 찾아보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우리가 그의 소유된, 택하신, 왕같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것처럼 큰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 한 그룹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3~25절**에서 또 다른 그룹은 **베드로전서 2장 1~17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데 도움이 되는 원리들을 찾아보게 한다. 학생들이 발견한 원리들을 칠판에 열거한다.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2쪽에 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문단**을 읽는다. 다음 질문에 대해 토론한다.

- 주님께서서는 왜 우리에게 표준을 주셨는가?
- 그분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나머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혹은 독특하게 할 수 있는가?
-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하나님의 표준에 비교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 곧 세상의 방식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백성이 되기를 바라신다고 간증한다. 만일 우리가 복음의 성약과 계명에 따라 생활하기로 택한다면, 우리가 특별하고 무한한 하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것이라고 간증한다.

역사적 배경.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에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들에게 일반적으로 관용적인 자세를 보였다. 교회는 온 천하에(마가복음 16:15) 복음을 전파하는 신성한 사명이 있었으며, 복음 메시지를 로마 제국에 널리 전함으로써 이 사명을 시작했다. 비록 복음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파되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왕으로서 오실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는 로마의 군주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메시지만은 아니었다.

서기 64년경에 화재가 일어나 로마의 많은 곳이 파괴되었다. 네로는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원성을 들어야 했다. 비난을 돌리기 위한 대상으로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지목했다. 곧 제국 내의 성도들이 증오와 오해로 인한 박해를 받게 되었다. 관용에서 적대감으로의 이러한 변화는 성도들에게 큰 근심을 가져왔다. 이 무렵 베드로는 고난 중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에게 그들의 충실함에 대한 영원한 보상을 일깨워 주기 위해 이 서한을 썼다. 베드로는 이 서한을 바벨론(베드로전서 5:13)에서 썼는데 이는 아마도 로마를 의미할 것이다.(경전 안내서, “바벨론”, 89쪽)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베드로전서 3:18~20.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다.(25~30분)

한 학생을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한다. 다른 한 학생에게 교실 밖으로 나가서 문을 닫게 한다. 교실 앞에 있는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조용하고 간략하게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한다. 교실 밖에 있던 학생에게 다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그 학생에게 조금 전에 다른 학생이 전한 메시지를 들었는지 묻는다. 들었다면 그 이유는? 듣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반원들에게 질문한다. 이 시범이 어떻게 영의 세계에 비유될 수 있는가? 영의 세계에서는 의로운 자들이 사악한 자들과 분리되어 있다고 설명한다.(예수와 그의 사도의 생애와 가르침, 126~127쪽에 있는 누가복음 16:19~31에 대한 주해 참조) **모세서 7장 38절을** 읽고 질문한다.

- 어떤 사람들이 홍수로 파멸되었는가?
- 그들이 갇혀있는 옥은 어떤 곳인가?

베드로전서 3장 18~20절을 읽고 예수께서 무덤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찾아본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기사가 축약된 이야기라는 점을 설명한다. 제6대 교회 회장이신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그 일에 대한 시현을 보았다. **교리와 성약 138편 28~32절을** 읽고 학생들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그처럼 짧은 시간 안에 그 영들에게 전파”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읽고 다음의 말씀을 나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마크 이 피터슨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산 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며, 진실로 죽은 자들이 모두 그에게는 살았노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38 참조)”

“그러나 그는 단 하나의 복음을 갖고 계십니다. 산 자는 물론 죽은 자도 그에게는 똑같으므로 산 자와 죽은 자는 모두 똑같은 복음의 원리에 따라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Conference Report, 1976년 4월, 20쪽; 성도의 빛, 1976년 8월호, 15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했을 때 이렇게 가르쳤다.

“죽은 자의 경우 그들이 육신을 가진 인간처럼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대리 의식이 있어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원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위대한 가족 역사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흥미로운 취미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77년 4월, 96쪽;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66쪽)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구주는 영육에 갇힌 영들에게 가서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며(다시 말해서, 복음의 원리에 따라 심판을 받음)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되리라고 가르치심으로써, 이 위대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구원의 교리, 2:118)

다음의 질문에 대해 토론한다.

- 예수님은 왜 그 격차를 메우고 복음이 영육에서 가르쳐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는가?
-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복음 메시지에 관해 모든 것을 배우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셨다고 간증한다.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베드로전서 5:1~11 우리가 스스로를 겸손해지고,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는 것을 배운다면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생에 대해 준비하도록 도울 수 있다.(30~35분)

제일회장단의 사진을 전시한다. 학생들에게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말해보게 한다.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의 2~3쪽에 있는 제일회장단 메시지를** 돌아가면서 읽는다. 그리고 나서 다음의 질문에 관해 토론한다.

- 교회의 청소년들에 대해 제일회장단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 그분들이 왜 시간을 내서 이런 소책자를 만들어 읽게 한다고 생각하는가?
- 그분들은 청소년에 대해 어떤 소망을 지니고 있는가?
- 그분들이 이런 소망을 실현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경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밝혀 주고 있다. 학생들과 **베드로전서 5장 1~4절을** 읽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토론한다.

•“양 무리를 치되”(2절)

•“양 무리의 본이 되라”(3절)

질문한다. “누가 목자인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읽고 예수께서 우리의 생활을 축복하신 두 가지 방법을 찾아본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예수님의 모범과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고난이 어떻게 그분의 오심에 대해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가?
-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읽는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양과 같이 길을 잃게 될 수 있는가?
-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삼을 수 있는가?

베드로는 또한 젊은 회원들에게도 권고를 주었다. 이 권고를 묘사하고 있는 주요 단어들과 표현을 찾아보면서 **베드로전서 5장 5~11절을** 읽고 나서 칠판에 그것들을 열거한다. 이 권고가 어떻게 젊은이들이 목자장의 오심에 대해 자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토론한다.

학생들에게 세미나리 또는 지난번 청년 공과 또는 아론신권 정원회 모임에 빠진 사람을 알고 있는지 묻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그들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개종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개종자들이 길을 찾도록 그들을 돕는 실질적인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야 합니다. 개종자 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곧 친구와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모로나이서 6:4)으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Conference Report, 1997년 4월, 66쪽; 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47쪽)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힝클리 회장의 권고대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주님과 그분의 교회는 후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청소년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고 간증한다. 경전과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보여주고 학생들이 모든 경륜의 시대의 충실한 교회 지도자들께서 주신 권고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격려한다.